



## “빨리가 아니라 어떻게 끝내느냐가 중요하다”

연합뉴스 노조는 23일 본사 7층 사장실 앞 복도에서 집회를 열고 파업투쟁을 70일째 이어갔다.

공병설 위원장은 “파업참여 전 조합원의 토론회 내용을 반영해 우리 입장을 만들어 사측에 전달했다”며 “박정찬 사장의 반응을 엿저녁에 들었는데 반응이 좋지 않았다”고 협상 상황을 전했다.

이어 “현재 상황이 그대로 간다면 타결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고 평가했다.

공 위원장은 “우리가 제시한 안을 토시 하나 고치지 않고 밀어붙이겠다는 것은 아니지만, 물건값을 깎아 주듯이 하나둘씩 때서 흥정하는 게 아니다”라고 단언했다.

이는 이번 안이 “노조를 위해서가 아니라 연합뉴스를 위해서,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다라는 생각으로 정리한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

그러면서 청소 아주머니와 있었던 에피소드를 전하며 신중하 마무리를 강조했다.

어느 날 저녁 노조 사무실로 청소하러 오신 아주머니에게 공 위원장이 “저희 때문에 고생하시죠. 빨리 끝낼게요. 조금만 참아주세요”라고 하자 그 아주머니가 “빨리 끝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끝내느냐가 중요하다”라고 충고했다고 한다.

공 위원장은 “제가 많이 하고 듣는 말인데, 청소하는 아주머니에게 들으니 (느낌이) 다르다”며 “오랜 세월 살아오면서 직접 몸으로 겪은 세상의 진리가 아닌가”라고 말했다.

공 위원장은 “우리가 (이런) 진리에 쫓아 열심히 싸우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사태를 빨리 풀려고만 하는 조급한 마음을 버릴 것을 주문했다.

연합뉴스 조합원은 사장실 앞 집회 후 서관 8층에서 민속놀이 올림픽대회에 참가해 딱지치기, 윷놀이 등을 즐겼다.

### 성명서

## 협상판 뒤엎은 대가 똑똑히 보라

박정찬 사장이 판을 걷어차버렸다.

협상이 진행중인 상황에서 지금까지 보여온 이중적 행태를 또다시 드러냈다.

박 사장은 23일 임기가 1년 이상 남은 멕시코 특파원 양정우 조합원을 본국으로 조기 소환하는 인사를 냈다.

연합뉴스 바로 세우기를 염원하며 파업에 참여한 평조합원에게 인사발령이란 이름으로 사실상의 징계보복을 가한 것이다.

이제 박 사장이 바라는 건 평화로운 사태 해결을 통한 연합뉴스 정상화가 아니라는 게 명확해졌다.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 또한 34년 동안 몸담아 온 연합뉴스 조직이 아니라 자신의 이익이라는 것도 다시 확인됐다.

우리는 박 사장이 이번 인사로 협상을 완전히 깨버린 것으로 판단한다.

인사를 즉각 철회하지 않는다면 무의미한 협상 대신 강력한 투쟁에 나설 것임을 선언한다.

사장 출근시간 농성을 출근저지 투쟁으로 다시 전환하고, 조합의 능력을 총가동해 다양하고 강도높은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또 업무현장에 있는 조합원들을 최대한 이른 시일안에 파업대오에 합류시킬 것이다.

우리는 징계성 보복인사를 강력히 규탄하며, 조속한 사태 해결의 길은 이를 즉각 철회하는 것뿐이라는 점을 분명히 경고한다.

2012년 5월23일

전국언론노동조합 연합뉴스지부

## 한 판 딱지로 불공정 보도 뒤집기

### 정치부 김남권 조합원, ‘연합 딱지왕’에 등극

동심으로 돌아간 2시간이었다. ‘불공정 보도’, ‘불공정 인사’ 등이 적힌 딱지가 경쾌한 소리를 내며 뒤

집힐 때마다 조합원들도 시원한 탄성을 질렀다.

파업 70일째를 맞은 연합뉴스 노조는 23일 오전 10

시30분 본사 서관 8층에서 ‘불공정 OO 뒤집기 딱지치기 대회’를 열었다.

길게는 30여년 만에 딱지를 접어서인지 조합원들은 초반에 딱지 제작에 헤매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조합원들은 몇번 서툰 손짓 끝에 능숙하게 딱지를 만들고, 이렇게 손수 접은 딱지 위에 공정보도

의 염원을 담은 문구를 써넣기도 했다.

지역마다 다른 딱지 접기 법에 대한 논박이 오가는 와중에 강훈상 조합원(보도국 파견)은 전주식 딱지 접기 법을 소개했다. 고동욱(스포츠레저부), 이지현(사회부) 조합원도 왕성하게 딱지를 접어내며 왕년의 실력을 뽐냈다.

이날 조별 대항 토너먼트로 열린 딱지 대회에선 치열한 대결 끝에 김남권 조합원(정치부)이 ‘연합 딱지왕’에 올랐다. 김 조합원은 첫 경기부터 3연승을 달리며 승승장구하던 중 맞수 고흥규 조합원(산업부)을 만나 신승을 거뒀다.

‘대현동 딱지왕’ 고 조합원은 꺾여 치기와 밧아 누





☞ 1면에 이어



르기 등 각종 기술을 구사하며 '서교동 딱지왕' 김남권 조합원의 딱지를 노렸다. 우열을 가리기 어려운 경기가 이어지자 양측의 응원·비방전도 고조됐다. 20 차례가 넘는 경합 끝에 우승은 김 조합원에게 돌아갔다.

이 대회에서 1년차 오수진(국제뉴스부), 한혜원(증권부) 조합원은 남성에 못지않은 힘으로 딱지를 내리치며 차기 딱지왕의 면모를 보여줬다. 반면 이태수 조합원(문화부)은 딱지를 제대로 조준하지 못하는 '헛치기'로 큰 웃음을 선사했다.

이어 우유팩 차기와 윗놀이 대회가 열렸다. 대형 윗판을 만들어 사람을 말로 삼은 윗놀이 대회에선 이용(사회부) 조합원의 아들 이안군의 활약이 돋보였다. 이군은 '모'를 연속으로 던지면서 다른 참가자

의 말을 잡기도 했다.

말이 엮히는 장면을 몸을 던져 연출한 장하나(정치부), 조성흠(사회부) 조합원의 살신성인에 힘입어 1조가 윗놀이대회에서 우승했다.



# 70.95% vs 4.65%의 민의, 가슴에 새긴다

## 연합뉴스 노조 단체 티셔츠 탄생

내일부터 피켓을 들지 않아도, 구호를 외치지 않아도 박정찬 사장 퇴진의 목소리를 온몸으로 낼 수 있게 됐다. 연합뉴스 노조는 24일부터 노조원 540여명 전원에게 단체 티셔츠를 지급한다.

단체 티셔츠에는 박 사장 퇴진을 바라는 연합뉴스 구성원들의 민의를 담았다. 티셔츠 중앙에는 72명과 5명이 대비되는 모습이 새겨져 있다. 노조가 전 사원을 대상으로 지난 4~9일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반영한 도안이다. 박정찬 사장 거취를 묻은 여론 조사에서 전 사원의 70.95%가 박 사장의 사장직 수행을 반대했다. 찬성률은 4.65%에 불과했다.

티셔츠 도안을 담당한 박영석 조합원(그래픽뉴스팀)은 "숫자로만 우리의 민의를 표현하면 강렬함이 덜 할 것 같아 사람을 새웠다"고 설명했다. 압도적인 사장 퇴진의 민의가 어떻게 하면 한눈에 드러날지 고민했다고 한다.

이용석 노조 총무부장은 "평상시에도 즐겨 입고 다닐 수 있을 만한 티셔츠를 만들려 했다"면서 "논의 끝에 '연합뉴스 노동조합' 문구를 반팔 티셔츠의 소매 부분에 새겼다"고 설명했다. 이 총무부장은 "조합원들이 자부심을 갖고 이 단체티를 매일 입길 바란다"며 "30수의 최고급 면으로 제작한 티셔츠"라고 강조했다.

